

# 삼성·SK·기아차·포스코... 다음달 대기업 채용문 열린다

### 인공지능·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중심 인재 확보

### 삼성, 4대 그룹 유일 정기 채용...롯데,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국내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이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용 시장에 먹구름이 끼어있어 취업문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채용을 시작하는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배터리, 바이오 등 주요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미래 인재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9월 초에 하반기 신입사원 정기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으나, 예년처럼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고 이후 직무적합성검사와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면접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은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사원 정기 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가 함께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은 작년 5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평균 1만6000명 수준으로, 올해도 예년처럼 상·하반기 합쳐 1만명 이상을 채용할 전망이다.

계열사별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SK그룹은 주요 계열사들이 하반기 채용을 준비 중이거나 시작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다음달 채용 절차 개시를 목표로 현재 채용 계획을 수립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조만간 하반기 수시 채용 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며, 채용 규모는 상반기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인프라, 개발, 서비스 등 분야별 신입사원 채용 지원 서류를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현대자동차는 대졸 신입 채용의 경우 '예측 가능한 상시 채용' 원칙에 따라 매 분기 마지막 달 1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로 모집한다. 다음 달 1일에도 채용 일정이 있다.

기아 역시 9월에 하반기 채용을 시작한다. 지난해 하반기 하이브리드 채용 방식을 도입한 기아는 상반기에는 매달 직무별로 상시 채용을, 하반기에는 부문별로 일괄 채용을 하고 있다.

LG그룹도 AI와 배터리, 전장 등을 중심으로 채용에 나선다.

LG전자는 오는 30일 유튜브 채용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부터 전국 주요 대학을 순회하며 대학생 대상 하반기 채용박람회를 연다.

LG화학도 오는 31일 유튜브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하는 등 조만간 채용 공고를 내고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확보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다음 달 9일까지 전기차용 배터리 셀 개발 인력을 비롯해 품질·생산기술·영업·마케팅 등의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이후 인적성검사와 면접, 인턴십 등의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내달부터 계열사별로 하반기 채용을 시작한다. 포스코는 9월 1일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시작하며, 채용 범위와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 중인 포스코퓨처엠은 공채 및 수시 채용을 이어갈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의 임직원 수는 현재 2800여명으로 최근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했다.

GS그룹은 GS리테일, GS건설, GS칼텍스, GS EPS, GS E&R 등 계열사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짜고 있다. 채용 인원은 1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HD현대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합해 1000여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다음 달에는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도 진행한다.

현대제철은 올해 하반기에도 수시 채용 형식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 300명가량을 뽑을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사별로 수시 채용을 하는 롯데그룹은 지난 23일 코리아세븐이 가장 먼저 채용 절차에 들어갔고, 다음 달에는 롯데홈쇼핑, 롯데렌탈,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의 채용이 예정돼 있다.

엔데믹에 따라 오프라인 채용 행사도 재개한다.

다음 달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호텔롯데 등 총 31개 계열사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과 경북대에서 잇따라 채용박람회를 연다. 11월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잡카페'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예년처럼 9~10월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통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주요 계열사의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CJ그룹도 9월 중 하반기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중이다. 다만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인 채용 문은 예년보다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여전히 기업의 재무 상황이 안 좋고 재고도 부담스러운 데다, 매출도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서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AI와 배터리,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관련 산업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미스매칭'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주서 소비 장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25일 지역 상생의 날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나주사랑상품권을 배부하고 있다. KREI는 나주 혁신도시와 인근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8월부터 매월 넷째 주 금요일 구내식당을 휴무하기로 했다.

(KREI 제공)

## 소상공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 1억원까지 5.5% 이하로...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서 신청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대출이 가계 신용대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우 오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을 활용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가진 대출(최초 취급시점 2020년 1월 1일~

2022년 5월 31일) 중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이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자영업자의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한글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송출수수료 너무 비싸" 홈쇼핑 블랙아웃

### 지난해 매출액의 65.7% 차지...롯데·현대, 경영난에 방송 중단 통보

홈쇼핑 업계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LG헬로비전에 내달 말 이후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롯데홈쇼핑도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티브이에 오는 10월 1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고지했다.

송출 수수료 갈등은 해묵은 문제지만 홈쇼핑사가 자발적으로 방송 송출까지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홈쇼핑 연합 약화와 그간의 송출 수수료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라는 업계의 반응이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사가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다.

지난해 송출 수수료 규모는 1조9065억원으로 2018년(1조4304억원)과 비교해 33.3% 증가했다.

한국 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송출 수수료는 연평균 8%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방송 매출액 대비 비중이 65.7%에 달하기도 했다.

상품 판매를 통한 순 매출 중 3분의 2가량이 송

출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다.

하지만 TV 시청 인구가 줄면서 홈쇼핑 연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2020년 1557억원에서 2021년 1339억원, 2022년 1127억원으로 매년 200억원씩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58.4%나 급감한 259억원에 그쳤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방송법 위반에 따른 새벽방송 중단 영향까지 겹치며 2분기 매출(2310억원·15.2%↓)과 영업이익(20억원·92.8%↓)이 동반 하락했다.

최악의 영업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그간 상승한 송출 수수료를 감당해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또 이른바 '가두리' 방식의 협상 관행도 문제로 꼽고 있다.

통상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채널에 인접한 앞번호에 가장 높은 송출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수수료는 뒷번호로 갈수록 낮아진다.

채널 위치는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료 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업체에 강제 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 건설사업관리업체 영업정지 8개월·설계업체엔 등록취소 처분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촉박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했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집단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

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연합뉴스

## 해양에너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 앞장

### 입장권 1000만원어치 구매...200여대 법인차에 홍보 스티커

(주)해양에너지는 27일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지난달 임직원과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장권 100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또 광주·전남 전역을 순회하는 200여대의 회사 법인차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게재하는 등

홍보에 적극 힘쓰고 있다.

해양에너지는 오는 9월 6일 개막식 참석 이후, 팀장급 직원과 신입사원 등이 디자인비엔날레 단체 관람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광주 일원에서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8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1	26	27	32	34	42	3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720,489,643		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0,009,214		62		
3	5개 숫자일치	1,568,126		2,768		
4	4개 숫자일치	50,000		142,123		
5	3개 숫자일치	5,000		2,390,544		

## 광주축산농협 '원로조합원 친교의 시간'

### 조합원 170여명 초청 국악·트로트 공연 관람 등

광주축산농협은 지난 22일 원로 조합원과 명예 조합원 170여명을 초청해 '2023년도 원로조합원 친교의 시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조합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원로 조합원을 위한 친교 시간과 삶의 질 향상 교육, 이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합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건강강좌(청춘을 되돌려주는 웃음건강), 국악·트로트 공

연 관람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원로조합원 간 화합을 다지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호상 광주축산농협 조합장은 이날 "모든 성과는 원로 조합원들의 무한한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원로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